수상 소감문

박 영 숙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교보생명환경문화상 시상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교보생명문화재단이 지난 10년동안 국내최고의 종합 환경상을 제정하고 해마다 세계 지구의 날에 우리나라의 환경교육, 환경운동, 환경연구 그리고 환경예술등 4개 부문에서 시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사회실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시상하고 있는 것은 교보생명의 특별한 환경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높이 평가 합니다.

나는 이상의 제정초기부터 수상자 심의위원회의 일원으로 관여하면서 우리나라 구석구석에서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애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도 행운이었지만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끈질긴 활동을 해내고 있는 환경지킴이들에게 이상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후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상이 갖는 또 다른 의미를 새삼 갖기도 하였읍니다. 그러면서 드러내지 않고 있는 더 많은 유공자들에게 이상이 주어지기를 늘 바래 왔읍니다.

그런데 올해 10주년을 기해 시상되는 특별상에 별로 한것 없는 저로 받는다고 해서 송구스럽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훌륭하신 선배 지도자들과 함께 수상한다고 하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닐수 없읍니다. 이 영예는 여성환경연대에게 돌리겠읍니다.

새롭게 다짐하게 되는 것은 남은 생을 지금까지 부족했던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보다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사를 채찍질로 받아드리고 노력하겠읍니다.